



의료원장에 임명된 천명훈 교수를 제3대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례적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직은 그 동안 사제로만 이어왔었는데 평신도가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 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7차 세계대회 참가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7차 세계대회가 11월 15일에서 17일까지 로마 바티칸시티 시노드홀에서 개최되었다.

“병원, 복음화의 장: 인간적이고 영적인 선교(The Hospital, Setting for Evangelisation: a Human and Spiritual Mission)”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 본 협회에서는 채계순 수녀, 박진미 수녀, 용진선 수녀, 김영택 신부 등 4명을 파견하였다. 회원병원과 직능단체 회원 중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 언어 가능한 사제, 의사, 간호사 중에 선정되었으며 보고서 제출과 몇 가지 미션이 주어진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소속인 본 협회는 2008년부터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세계대회에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항공료와 참가등록비를 지원한다.

몽골 환우 통갈락에게 새 희망을...



본 협회 해외의료봉사(7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양측 대퇴골 및 경골의 심한 변형을 가

진 환자 통갈락(Tungalag Jargalsaikhan 여, 27세)과 보호자를 초청하여 의료비, 항공료 지원으로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임영욱 교수)에 입원하여 대퇴골 및 경골 절골술, 단축술 및 외고정술을 11월 19일에 받았다.

통갈락은 1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수술 시간은 최소 한쪽 다리에 8시간씩 걸린다. 또한 한 번에 양쪽 다리의 수술은 불가능하며 한쪽 다리를 2번에 걸쳐서 수술해야 한다.(수술횟수 총 4회)

이 수술은 상당히 위험한 고난이도의 수술이며, 수술 후 외래를 반복적으로 내원하여 양쪽 다리를 교정해야 하며, 교정 후 외 고정을 달아야 한다.

반복적인 골절과 유합으로 변형이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장애로 평생 휠체어에만 의지하던 통갈락에게 한국의 의료진이 새 희망을 준 것이다.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통갈락(모니카)은 몽골 울란바타르 항올성당 신자이며 몽골에서 사목 중인 대전교구 김성현 신부의 추천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해외의료봉사 평가보고회

11월 30일, 2012년 3회(사랑의날개 7기 1차 5. 6~13 몽골 다르항 / 7기 2차 9. 8~15 몽골 다르항 / 7기 3차 10. 6~13 필리핀 나보타스) 실시한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서울성모병원 별관 1층 그랑미셀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NEWS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제15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 (AFCMA 2012) 참가



제15차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Sanur Paradise Plaza

Hotel(사누루 파라다이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에서 강준기 명예회장, 조건현 회장, 고영초 교수 등 3명이 참석하여서 3가지 연제를 발표했다. 15차 AFCMA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톨릭의사들의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아시아 지역 참가국은 총 15개국(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강준기 명예회장은 “장애 어린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며 우리 가톨릭의사들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하고, 실제 중추신경계 기형 장애 어린이에 대한 치료, 치험 예를 소개하면서 가톨릭의사들의 생명존중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조건현 회장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지난 4년간 역할과 실제 국내, 국외 선교활동, 업적보고 등을 발표하였고, 고영초 교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가톨릭신자들을 돌보아주는 라파일크리닉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상태, 연간 업적 등을 포스터로 발표하였다.

이번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임원개선에 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임기의 신임회장에 인도네시아의 Dr. I. H. Widjaja가 선임되었으며 한국의 강준기 명예회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조건현 교수는 회원관리 chairman으로 선출되었다. 4년 뒤 16차 개최되는 일본 교토로 결정되었고, 발리 가톨릭교구장이신 Mgr. Sului Forentinus 주교 집전 하에 장엄한 폐막미사로 총회를 마쳤다.

전국 교구 회장단 회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전국 교구 회장단 회의가 12월 1일에서 2일까지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개최된다. 8개 교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NEWS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 대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개최



에서 개최되었다.

“숨 쉬는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하여라”(시편 150,6)는 주제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본 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피정’이 대구대교구 주관으로 한티 피정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로 전국 14개 교구에서 220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손기철 대구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지도신부의 인사와 김중헌 신부의 한티순교성지 소개, 이창영 신부의 ‘생명윤리’ 강의 및 예수성심시녀회 김연희 수녀의 ‘영혼아 기뻐하라’는 새 삶의 퍼포먼스가 이어졌으며 한 밤엔 전국 이사회로 20일을 마무리하였다. 21일엔 십자가의 길과 신자촌 관람 및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의 파견미사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회원들의 전국 피정이 마무리 되었다.

중앙임원들, 제주도 성지순례 및 피정 실시



2012년 하반기 가톨릭간호사협회 중앙임원들의 성지순례 및 피정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성이시돌

목장의 새미 은총의 동산 및 면형의 집에서 실시되었으며 제5차 중앙이사회도 겸하였다.

NEWS 한국가톨릭약사회

전국교구 임원 모임

황새바위 순교성지순례 및 특강 실시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에서는 11월 4일 일요일에 충남 공주의 황새바위 순교성지로 성지순례를 다

녀왔다. 황새바위 순교성지는 성인 손자선 토마스와 기록된 치명자 337위, 그밖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교우들이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지이다.

특강은 로마의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에서 “가정의 영성”을 전공하신 최상순 비오 신부님이 담당하였다.